

1 오후 1시 공개 2 맛보기 싱글 3 글로벌 확장

美 동부 기준 오전 0시 음원 공개
정규앨범 전 싱글곡 선공개 전략
전세계 동시 공개·해외 공략 박차



슈퍼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역시 '노는 물'이 다르다.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슈퍼엠과 블랙핑크가 일주일 격차로 잇달아 컴백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직전 앨범까지 세계 양대 팝음악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를 휩쓴 이들이기에 새롭게 내놓은 신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이들 역시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글로벌시장 집중 공략... '오후 1시' 음원 공개

포문을 여는 그룹은 슈퍼엠이다. 'SM 어벤저스'라 불리는 이들은 14일 새 싱글 '100'(원드레드)을 내놓으며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시동을 건다. 글로벌시장을 직접 겨냥하기 위해 한국시간 기준(이하 동일) 이날 오후 1시에 음원을 발표한 다. 보통 국내에서 음원을 공개하는 시간은 오후 6시. 하지만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 기준으로 새 싱글 곡을 발표하기

로 했다. 이들 뿐만 아니다. 일주일 후인 21일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하는 방탄소년단 역시 음원과 뮤직비디오 공개 시간을 이날 오후 1시로 택했다. 일반적인 퇴근 시간을 감안해 신곡을 대체로 오후 6시에 발표해 왔던 이들이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간을 변경했다.

28일 새 싱글을 발표하는 블랙핑크도 오후 1시를 '디(D)데이 에이치(H)-아워'로 정하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정규앨범 발표 전 싱글 곡으로 '맛보기'

세 그룹 모두 이번에 발표하는 곡은 정규앨범에 앞서 선보이는 싱글 곡이다. 10곡 이상의 노래를 담은 정규앨범을 내놓기 전 '맛보기'용으로 1~2곡을 먼저 공개해 분위기를 띄우는 방식을 택했다.

슈퍼엠은 9월1일 또 다른 싱글 '호랑이(Tiger Inside)'를 발표한 뒤 같은 달

25일 첫 번째 정규앨범 '슈퍼 원(Super One)'을 선보인다. '100'과 '호랑이'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Super) 존재로서 각자의(One)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 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방탄소년단도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다이너마이트'를 공개한 후 새 정규앨범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들은 앞서 "정규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노래가 나왔고,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다.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코로나19)에 저희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신선한 시도이자 도전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0월2일 정규 1집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블랙핑크는 앞서 6월 '하우 유 라이크 댓'에 이어 28일 두 번째 싱글 곡을 선 공개한다. 이번엔 미국 출신 가수 겸 배우 셀레나 고메즈와 손잡고 협업곡을 발표한다.

●글로벌 무대 확장

이들은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만큼 음원을 전 세계 동시 공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데뷔 앨범을 통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던 슈퍼엠은 11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과 글로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블랙핑크도 "2020년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과 실천으로 글로벌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미 첫 무대를 확정했다. 31일 오전 9시 미국 음악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MTV Video Music Awards·VMAs)'에서 신곡을 공개하고, 시상식에 앞서 미국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강남경찰서, 신현준 전 매니저 고발장 반력

배우 신현준이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전 매니저가 7월 제출한 고발장을 경찰이 반려했다. 12일 강남경찰서 법륜대리인 법무법인 평안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떠한 불법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 매니저 김보씨가 낸 해당 고발장을 7월27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현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신현준이 10년 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를 고발했다. 이에 신현준은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성준, 내달 12일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

연기자 성준이 9월12일 정식 결혼식을 올린다. 소속사 오엔터테인먼트는 12일 "2018년 입대 전 성준이 비연예인 연인과 사이에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준은 가족과 친지만 초대해 조촐한 예식을 올릴 예정이다. 성준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올해 2월 군 복무 도중 아이를 얻었다. 이후 가족 부양을 위해 상근 예비역으로 대체 복무하고 7월27일 전역했다. 성준은 2011년 KBS 2TV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화이트 크리스마스'로 연기 데뷔해 '구가의 서', '연애의 발견', '상류사회' 등에 출연했다.

공지영 "김부선, 음란사진으로 1년째 협박"

배우 김부선과 공지영 작가가 SNS상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 작가가 11일 SNS를 통해 16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 김부선에게 보낸 음란사진과 관련해 1년째 협박해왔다고 주장한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이에 김부선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모 정치인과 자신의 스캔들 공방 과정에서 공 작가로 추정되는 이와 통화한 내용이 온라인상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라"는 취지였으며 맞섰다. 당시 김부선이 해당 인물에게 정치인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한 내용이 유출됐다. 김부선은 공 작가에게 "적어도 몰래 녹취해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거나 그런 짓 안 한다"면서 "제게, 사과 정중하게, 정직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AOA 전 멤버 권민아, 소속사 대표와 대화

결그룹 AOA의 전 멤버 권민아와 현재 일부 멤버들 사이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AOA의 일부 멤버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해온 권민아와 AOA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가 최근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12일 알려졌다. 권민아는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 놀라셨을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그는 앞서 AOA 일부 멤버와 한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CGV 용산, 확진자 방문으로 하루 휴업

멀티플렉스 극장인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12일 하루 문을 닫았다. CGV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이 확인돼 임시 휴업했다"면서 "방역 완료 후 13일부터 정상 영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GV를 비롯해 각 극장은 현재 전 상영관에서 좌석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감염병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여름 극장가 3파전만큼 뜨거운 '추석 빅3'

송중기 주연 승리호, 9월23일 선점
김메이커·싱크홀도 추석 개봉 준비



영화 '승리호'

여름 극장가만큼이나 올해 추석 연휴에도 한국영화 흥행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봉 시기를 고심해온 각 영화가 극장가 성수기인 추석 연휴를 정조준하고 있다. 각기 다른 장르와 소재를 내세우고, 티켓파워를 입증한 배우들이 나서는 만큼 관객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여름시즌 3파전을 벌인 '반도' '강철비2: 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처럼 9월 말 추석 연휴에도 한국영화 '빅3'가 대결 양상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송중기·김태리의 '승리호'(제작 영화사 비단길)가 개봉일을 9월23일로 선점한 가운데 차승원의 재난 블록버스터 '싱크홀'(제작 더타워 픽처스)과 설경구·이선균의 '김메이커'(제작 씨앗필름)도 여러 조건을 검토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개봉 여부를 논의 중인 또 다른 영화가 경쟁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는 해보다 치열한 추석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름 개봉을 준비하다 일찌감치 추석 연휴로 선회한 '승리호'는 총 제작비 240억원대 블록버스터다. 2002년 우주에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주인공들의 모험을 그린다. 2012년 '늑대소년'으로 700만 관객 흥행을 합작한 송중기와 조성희 감독이

재회해 2연타석 홈런을 노린다. '승리호' 측은 "스펙터클하고 다이나믹한 우주에서 배우들이 빛나는 앙상블을 통해 새로운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추석 개봉을 논의하는 '김메이커'는 기획부터 열혈 마니아 팬의 기대를 한껏 모은 영화이다. 2017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통해 '불한당원'이라는 팬덤을 쌓은 설경구와 연출자 변성현 감독이 다시 뭉친 덕분이다.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과 선거 전략가가 펼치는 치열한 선거전 이야기다. '기생충'으로 주가를 높인 이선균을 비롯해 유재명, 조우진 등 경쟁한 배우들이 뭉쳤다.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1분 만에 싱크홀로 추락한다는 설정에서 출발하는 재난영화다. 고층건물 화재의 재난상황을 그린 '타워'로 흥행을 맞본 김지훈 감독이 차승원과 처음 손잡고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박초롱 서머룩 '눈부서라' 역시 '청순돌'의 대표 주자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리더 박초롱이 패션 매거진 오모이가 12일 공개한 화보를 통해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붉은색의 하늘하늘한 원피스와 청재킷을 매치시켜 신선한 '서머룩'을 완성시켰다. 사진제공 | 오모이

유튜브서 핫 한 '납량특집'...TV에선 실종

유튜브 '토요미스테리' 등 인기
방송가, 시청률·방송심의 부담

'토요 미스테리극장', '이야기속으로'...

1990년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준 공포체험 재연프로그램이다. 유튜브에서 과거 프로그램 '다시보기'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납량특집 예능프로그램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삼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안방극장에서 납량특집물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 대조를 이룬다.

1996년과 1997년 각각 방영한 SBS '토요미스테리극장'과 MBC '이야기속으로' 시청자가 제보한 초자연적 현상을 재연한 프로그램으로, '레전드 팬'이란 제목으로 묶여 각종 SNS에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2012년 종영 전까지 매해 납량특집으로 꾸며던 MBC '놀러와'도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언급한 귀신 목격담 등을 짧게 재편집한 영상들이 유

튜브에 올라오고 있다. 각 영상에는 3~4년 전부터 안방극장에서 자취를 감춘 귀신과 저승사자가 "그립다"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달린다.

하지만 납량특집물을 바라보는 방송가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화제성과 별개로 호불호가 갈리는 소재여서 시청률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도 제작진에겐 부담스러운 요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프로그램 PD

는 12일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은 TV 시청자 층으로 좁히는 여성 및 중장년층의 취향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를 통해 좀비나 오컬트 요소가 강한 해외 드라마에 익숙해진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최근 추리와 오컬트 요소를 강조한 예능프로그램이 납량 특집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약령, 외계인, 빙의 등을 소재 삼은 추리 예능프로그램 tvN '대탈출' 시리즈가 변화한 시청자 취향에 발맞춘 시도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